

## 가나야고카미와 가나야고 신사

가나야고 신사는 다타라 제철의 수호신인 가나야고카미를 모시는 총본사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지역을 포함한 주고쿠 지방(지금의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야마구치현)의 제철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나야고카미에 대한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1791년, 1807년, 1819년에 신사 수리를 위해 기부된 문헌입니다.

18 세기에 쓰여진 『철산비서(鐵山祕書)』(다타라 제철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록한 서적)에 따르면, 가나야고카미는 천상에서 하리마국(지금의 효고현)으로 강림했습니다. 이후, 백로의 등을 타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지금의 와코 박물관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는 산속의 계수나무에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 아베 마사시게라는 이름의 남자는 산에서 사냥을 하다 가나야고카미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나야고카미는 아베에게 신사를 짓도록 명을 내렸고, 신사가 완성되자 제철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의 신사가 지금의 가나야고 신사이며, 야스기의 히로세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했던 가나야고카미는 특히 다른 여성을 질투하는 까다로운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야고카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제철 작업 중에는 여성이 용광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가나야고카미는 여우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